

아프리카 국가의 국부펀드 설립 동향과 전망

작성자 : 전해린 전문연구원

작성일 : 2013년 8월 23일

■ 최근 2년간 아프리카 에너지 자원 부국의 국부펀드 신규 설립이 활발히 추진 중임.

- 2011년 가나, 2012년 나이지리아와 앙골라가 국부펀드를 설립하였으며, 현재 탄자니아, 모잠비크, 우간다, 모리셔스, 시에라리온 등이 국부펀드 설립을 논의 중임.

○ 2013년 7월 기준 전 세계 49개국이 72개의 국부펀드를 통해 약 5조 8,100억 달러를 운용 중이며 이 가운데 아프리카 9개국의 비중은 약 2.7%(\$1,560억)¹⁾

- 국부펀드 설립의 주요배경으로 일차산품 가격의 불안정한 변동을 경험한 아프리카 자원수출국 스스로가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재정을 운용할 필요성을 인식했다는 점과 국제금융기구가 안정화 펀드의 설립을 지속적으로 권고했다는 점을 들 수 있음.

표 1. 아프리카의 주요 국부펀드 현황(규모순)

국가	펀드명	설립연도	규모 (\$10억)	주요 자원	설립목적	투명성 지수
알제리	Fonds de Regulation des Recettes	2000	77.2	원유·가스	안정화	1
리비아	Libyan Investment Authority	2006	65	원유	개발	1
보츠와나	Pula Fund	1994	6.9	다이아몬드	저축	6
앙골라	Fundo Soberano de Angola	2012	5.0	원유	안정화·개발·저축	-
나이지리아	Nigerian Sovereign Investment Authority * 석유초과수입계정(ECA)의 후신	2012	1.0	원유	안정화·개발·저축	1
가봉	Gabon Sovereign Wealth Fund	1998	0.4	원유	개발	-
모리타니	National Fund for Hydrocarbon Reserves	2006	0.3	원유·가스	안정화	1
적도기니	Fund for Future Generations	2002	0.08	원유	안정화·개발	-
가나	Ghana Petroleum Funds	2011	0.07	원유	개발	-

주: 투명성 지수는 국부펀드의 투명성 수준을 평가한 Linaburg-Maduell 투명성 지수를 참고(1점 최하, 10점 최상)

1) 대륙별 운용규모(비중)는 아시아 40%, 중동 35%, 유럽 17%, 미주 3%, 아프리카 3%, 기타 2% 순임.

자료: Sovereign Wealth Fund Institute 홈페이지(2013년 7월 기준)를 바탕으로 필자 작성.

■ 아프리카 국부펀드는 △ **재원의 성격에 따라 상품펀드**²⁾ △ **설립목적에 따라 안정화 펀드로 분류되며 자국 및 역내 투자 비중이 크다는 특징을 보임.**

- 아프리카 국부펀드의 주요 재원은 에너지자원 수출을 통해 확보한 외화수입원임.
- 일차산품 가격·인플레이션·환율의 단기적 변동성이 국가재정 전반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안정화펀드가 주를 이루고 있어, 수익성보다는 안정성 및 유동성 확보가 우선시 되고 있음.³⁾

○ 예외적으로 리비아는 아프리카 사회·인프라 개발을 주목적으로 하는 개발펀드를, 보츠와나는 장기투자 및 고수익률에 주안점을 둔 저축펀드를 운용해옴.

- 세계 주요 국부펀드가 선진국의 우량 국채·주식 및 부동산 투자에 집중해온 데 반해 아프리카 국부펀드는 자국 및 역내 투자를 우선시

○ 특히 리비아는 ‘Libyan African Investment Portfolio’를 통해 잠비아·우간다·코트디부아르·니제르의 정보통신 기업 및 아프리카 전역의 호텔·석유화학·건설 관련 기업에 대대적인 투자를 감행해옴.

○ 최근 신설된 가나·나이지리아·앙골라의 국부펀드는 모두 펀드자금의 일부를 자국 및 아프리카 사회·인프라 개발재원으로 활용할 것을 명시

■ 국부펀드가 국가재정 안정화와 장기투자를 용이하게 하여 아프리카 발전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국부펀드 설립 붐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 **관리 투명성 결여** △ **투자전략의 부재** △ **정치적 목적으로의 오용 가능성** 등의 문제를 배제할 수 없음.

- 국가재정 안정화와 장기적 투자 가능성 제고는 국가신용등급과 투자매력도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 실제로 세계 3대 신용평가회사는 국부펀드 설립이 국가 재무건전도(financial strength)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 국부펀드 설립 전후를 기점으로 앙골라와

2) 국부펀드는 재원의 성격에 따라 원유·가스의 수출수입(收入)을 재원으로 하는 상품펀드(commodity fund)와 외환보유액의 일부를 재원으로 삼는 비상상품펀드(non-commodity fund)로 구분되며 각각의 비중은 59%와 41%.

3) 설립목적에 따라 △ 안정화펀드(stabilization fund) △ 개발펀드(development fund) △ 저축펀드(saving fund)로 구분

나이지리아의 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할 바 있음.

- 국부펀드 관리 능력과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는 현 상황에서 정부의 권력남용과 부정부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음.

○ 아프리카 국부펀드는 Linaburg-Maduell 투명성 지수 최하위권을 기록

○ 이에 앙골라의 경우 국부펀드 규제 위원회를 신설, 회계감사 및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경주

〈자료: SWF Institute, Oxford Analytica, The Africa Report, 아프리카개발은행〉